관람안내 | VISITING INFORMATION

전시기간
2023년 11월 17일 금요일 - 2024년 3월 3일 일요일
(매주 월요일 휴관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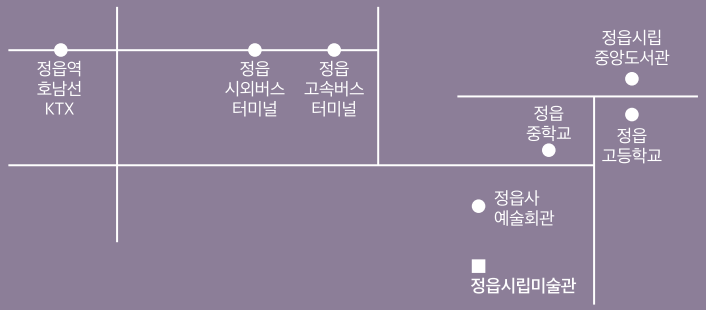
관람시간
오전 10시 - 오후 6시 (오후 5시 30분 입장 마감)

관람료
관외 5,000원 | 정읍시민 2,000원 (신분증 제시), 현장발권

장소
정읍시립미술관 | 1, 2, 3 전시실

전시문의
063-539-5178 | www.jeoneup.go.kr/culture

오시는 길



Jeongeup Museum of Art 정읍시립미술관 전라북도 정읍시 시기 4길 7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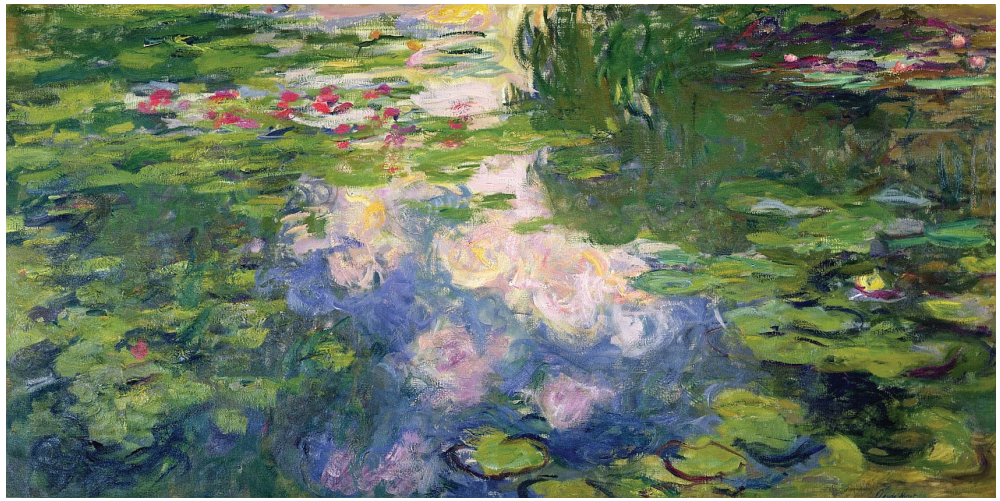
온라인 미술관

2023 정읍시립미술관 특별기획전시

시민 중심, 으뜸 정읍

명화,
미디어아트로 피어나다

MASTERPIECE, BLOSSOMS INTO MEDIA ART



2023. 11. 17 - 2024. 3. 3
정읍시립미술관

주최 정읍시 JEONGEUP-SI Jeongeup Museum of Art 정읍시립미술관 주관 DNMD

MASTERPIECE, BLOSSOMS INTO MEDIA ART

2023년 정읍시립미술관은 해외 명화를 실감미디어로 경험할 수 있는
《명화, 미디어아트로 피어나다》 전을 개최한다.
이번 전시는 '미디어아트 특별기획전시'로
해외 유명 작가들의 명작들이 빛을 통해 미디어아트로 구현된다.
빈센트 반 고흐, 클로드 모네, 에곤 쉴레, 구스타프 클림트,
귀스타브 카유보트, 에드바르트 뭉크 등의 대표작들은
빛과 소리를 만나 봄 · 여름 · 가을 · 겨울
사계(四季)가 전시실에 공감각적으로 펼쳐진다.
사계절이 보여주는 자연의 변화는 자연의 아름다움뿐 아니라
공간을 경험하는 몰입형 전시와 자연의 풍경이 만나,
자연에 동화되는 완벽한 몰입감을 체험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다.
전시 공간을 거닐면서 움직이는 이미지와 음악이 주는
다채로운 감각들을 통해 명화의 감동을 다시금 느낄 수 있을 것이다.
예술 작품 속에 들어와 작가의 숨결을 함께 공명하는 시간이 되길 기대한다.

1 봄과 여름

봄과 여름을 표현한 빈센트 반 고흐,
클로드 모네의 작품들로 구성되어 있다.
전시와 이른 봄의 시작을 알리는
<꽃 피는 아몬드 나무>는 빈센트 반 고흐의
대표작으로 푸른 하늘을 배경으로
흰 꽃이 흐드러지게 피어나는
순간을 그려 생명의 시작을 알린다.

빈센트 반 고흐, <꽃 피는 아몬드 나무 Almond blossom>, 1890

클로드 모네, <수련 연못 The Water Lily Pond>, 1899

여름의 시작은 클로드 모네의 <수련 연못>과 함께 한다.
연못 가득 심은 수련과 빛에 따라 달라지는 정원의 경치는
빈센트 반 고흐의 <삼나무가 있는 밀밭>으로 이어진다.

2 가을과 겨울

찬바람이 부는 가을과 겨울의 아름다움은 에곤 쉴레, 구스타프 클림트, 귀스타브 카유보트,
에드바르트 뭉크, 빈센트 반 고흐, 클로드 모네의 인상적인 작품으로 선보인다.
가을은 에곤 쉴레의 <네 나무들>로 시작된다. 붉게 물들어가는 하늘을 가로로 나누는 시선과
하늘과 수직을 이루며 곧게 뻗은 나무들이 강렬한 대비를 보여준다.

에곤 쉴레, <네 나무들 Four Trees>, 1917

클로드 모네, <센 강 위의 얼음 Ice Floes on Siene>, 1880

겨울 풍경은 클로드 모네의 <센 강 위의 얼음>에서 만나볼 수 있다. 눈이 내린 후 얼음이 얼고 녹는
겨울 강가의 장면이 모네의 빛을 통해 새로운 관점으로 펼쳐진다.

3 인터렉티브 존

인터렉티브 존(Interactive Zone)에서는 가을과 겨울을 보여주는 명화를 통해 관람객이
작품을 함께 만들어가는 전시로 구성하여 다채로운 체험을 즐길 수 있다.
구스타프 클림트의 <너도밤나무 숲>은 가을의 끝자락, 순간의 아름다움을 포착한 작품이다.
스산한 바람과 바스락 거리는 나뭇잎은 파편이 되어 곧 사라져가는 장면을 보여준다.

구스타프 클림트, <너도밤나무 숲 Beech Grove>, 1902

에드바르트 뭉크, <새 눈 New Snow>, 1901

겨울 풍경은 에드바르트 뭉크의 <새 눈>으로 펼쳐진다. 뭉크는 인간의 내면과 존재를 고독과
불안이라는 감정으로 북유럽의 풍광을 화폭에 담아낸다.